

Gen Z 아티스트 prettylittleiris가 전하는 한국의 아트[예술] 이야기

Arirang 라디오 'H[a:rt] Attack'



음악, 영화/드라마, 문학 등 **다양한 분야의 아트(art)** 를 소개하여

한국 문화의 매력 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

**청취자들의 마음(heart)을
'심쿵'하게 만드는 시간**

프로그램 소개

MZ세대의 시선으로 세계의 청취 들과 만나다

예술이란 결국, 마음을 움직이는 것. 프로그램의 제목이 H[a:rt] Attack (하트어택)인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.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아리랑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 청취자들과 만나는 이 프로그램은, 한국의 예술과 문화로 청취자들의 심장을 두드린다.

진행을 맡은 22살 DJ 아이리스 (pretty littleiris)는 아리랑 라디오의 막내 DJ지만, 고등학생 때 첫 출연을 시작으로 어느덧 본인의 프로그램을 맡게 된 진정한 '라디오 키즈'. 마이크 앞에서 자라온 그녀는 이제, 한국 문화를 알리는 목소리로 청취자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있다.

요일마다 다른 테마로 채워가는 한국의 문화

월요일에는 K-드라마와 영화를, 화요일엔 숨은 여행지를, 수요일에는 한글을 배우고, 목요일엔 한식을 직접 맛보며 소개한다. 금요일에는 문화·예술계 인물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, 주말에는 최신 K-POP 추천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전한다. 아리랑 방송국의 특성상 이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, 유튜브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, 그리고 제주도와 부산의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전 세계 청취자들과 만난다. 청취자 중 상당수는 해외 리스너들이다.

당찬 막내 DJ 'prettylittleiris'

싱어송라이터 프리티리틀아이리스는 본인의 활동명에 직접 pretty와 little



을 넣은, 당찬 막내 DJ다. 그 솔직함이 이 프로그램의 톤과 색을 만든다. 내공과 연륜이 돋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있다면, 하트어택은 신선하고 패기 있는 MZ세대의 시선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이다.

아이리스는 카페를 가기보단 집에서 책을 읽고, 친구를 만나기보단 혼자 영화를 본다. 아침은 언제나 뉴스를 들으며 시작하고, 밤은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다시 책을 읽으며 마무리한다. 자칫하면 지루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조용하고 단단한 일상이 있었기에, 아이리스는 어린 나이에 교양 프로그램 DJ가 될 수 있었다.

깊이와 다양성으로 알아보는 한 국의 강점

'K'라는 수식어는 이제 어디에나 붙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매력은 곳곳에서 드러난다. K-팝, K-문학, K-미디어에 그치지 않고, 하트어택은 더 깊이 파고든다. 파티시에, 발레리노, 재즈 칼럼니스트, 무용수, 지휘자 등, 다양한 직업군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 세세하게 한국이 지닌 강점들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한다.



오후 두 시, 마음을 건드리는 예술한 조각을 원한다면, 아리랑 라디오 H[a:rt] Attack이 당신의 심장을 두드릴 것이다. Welcome, we attack your heart with ART! 🎧

문화는 '다름'이 아니라
'차이'라고 말하는 데에는
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.
새로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,
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방송,
하트어택 앞으로
많이 들어주시고, 함께 해주세요.

